

운송 Analyst 오정하

02. 6454-4879

jungha.oh@meritz.co.kr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조선 화재 가를 USTR 공청회 가보니

USTR 공청회에서 찬반 의견이 극명히 갈렸다고 보도됨. USTR은 4월 2일까지 추가 의견을 받은 후 공청회 결과를 반영해 최종 정책을 내놓을 방침으로 언급됨. (서울경제) (<https://buly.kr/7mBlwkv>)

현대차그룹, 美서 100만대 생산 능력 갖췄다... 6조 '스마트 공장' 완공

현대자동차그룹이 미국에 최첨단 제조 혁신 거점을 구축했다고 보도됨. 26일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의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언급됨. 2022년 10월부터 공사가 시작됐다고 알려짐. (데일리안) (<https://buly.kr/AEzugCl>)

GE에어로스페이스, 대한항공 새 항공기에 엔진 공급

GE에어로스페이스(GE)는 대한항공이 새로 도입하는 항공기 777-9(20대)와 787-10(최대 30대)의 항공기 엔진으로 자사 제품인 GE9X 엔진과 GENx 엔진을 주문했다고 보도됨. 이번 주문에는 GE9X 엔진의 유지 보수 정비를 제공하는 서비스 계약도 포함된다고 알려짐. (조선Biz) (<https://buly.kr/EziNA5F>)

아시아나 주문 비행기 대한항공이 사용... 노조는 배임 주장

1월 27일 첫 운항을 시작한 대한항공의 A350 항공기가 아시아나항공이 에어버스에 주문했던 항공기였다고 보도됨. 아시아나항공은 당초 작년 11월 A350 항공기 2대를 에어버스로부터 인도 받을 예정이었다고 알려짐. 구매 계획을 밝힌지 9개월 만에 항공기를 인도 받은 것인데, 이례적으로 짧은 기간으로 언급됨. 아시아나가 항공기 도입을 대가 없이 포기한 게 맞다면 영업이익 손해를 고려할 때 배임이 될 수 있다고 알려짐. (조선Biz) (<https://buly.kr/B7ZhaBQ>)

티웨이항공 '일등석' 승부수...내달 유럽 첫 서비스

티웨이항공이 LCC 중 처음으로 일등석 좌석 운영을 도입해 4월 유럽 노선에 본격 배치한다고 보도됨. 캐세이 퍼시픽이 사용하던 B777-300ER을 2024년 도입했다고 알려짐. 294석 중 앞자리 6석은 일등석으로 언급됨. (뉴스시스) (<https://buly.kr/7mBlwi8>)

테무 조사만 1년째...개보위 "자료 제출 지연 시 부담금 부과 고려"

개인정보위원회가 사업자의 자료 제출이 지나치게 지연될 경우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으로 보도됨. 테무가 개인정보위 자료 제출 요구에 불성실하게 대응하면서 조사가 늦어지고 있다고 알려짐. 조사는 2024년 3월부터 시작됐다고 알려짐. (이투데이) (<https://buly.kr/D3e2NCl>)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명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